

3대 특검법 ‘신의 한 수’…공소취소·시효정지·재판중계

채상병 사건 공소권 남용 제동
김건희 수사, 시효 걱정 사라져
尹 내란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수사 효율 제고·재판 신뢰 확보

수사에 본격 착수한 3대 특별검사들이 초반부터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특검법 조항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수사 효율을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정교한 장치’들이 법에 포함돼 있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특검 성공을 견인할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무죄 확정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에 수사뿐 아니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

인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재판 전략이 아닌, 이번 채상병 특검법이 부여한 특검 권한 중 ‘공소취소권’이 현실화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명현 특검은 “1심 판결과 군 검찰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항소유지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군 검찰이 박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 이첩을 보고했다가, 이를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추가했지만, 특검의 공소 취소로 재판은 일단락됐다.

● 김건희 충분한 수사 위한 ‘안전장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명태군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들어 있다.

‘김건희와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 부칙 제4조에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니라, 김씨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검사는 김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군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김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

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2개월 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재직 중 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돼, 현재 약 4개월의 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기엔 빠듯하다.

하지만 특검법의 부칙 덕분에 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까지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됐다. 수사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시효 만료 걱정 없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 ‘재판 공개·생중계’ 전환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재판 공개 및 중계 허용’ 조항이 재판 공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형사재판 생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을 담았다.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불허 시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단순한 ‘재판 공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재판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만 제한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에서 생중계를 법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향후 다른 주요 사건의 재판 공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의 공소취소권, 김건희 특검의 시효 정지,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조항은 각각 수사 성과와 국민 신뢰를 담보할 핵심 장치”라며 “이 같은 법적 장치는 특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적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유철·이정준·정승우 기자



왼쪽부터 박찬진 교수(교신저자), 무하마드 아슈라프 박사과정(제1저자), 자비드 아시프 박사과정, 김정민 석사과정.

전남대 제공

전남대, 차세대 ‘칼륨이온전지’ 수명 늘렸다

망간 소재 안정화 기술 개발
ESS용 고성능 배터리 주목

전남대학교 박찬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칼륨이온전지(KIB)의 수명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

전남대는 13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박찬진 교수팀이 망간계 양극 소재에 아연 도핑과 표면 코팅을 결합한 ‘이중 안정화’ 기술을 통해 칼륨이온전지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칼륨이온전지는 자원이 풍부하고 원가가 저렴해 리튬이온전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대형 전력망 활용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팀은 층상 산화물 K_{0.45}MnO₂에 아연(Zn)을 도핑해 격자 안정성을 높이고, 표면에는 칼륨탄탈산염(KTaO₃) 나노코팅을 적용해 계면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소재 성능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격자 붕괴, 전해질 부반응, 수명 저하 등 기존 소재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했다.

개발된 양극 소재(KTO/KMZO-1)는 200회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80%를 유지해 기존 대비 약 1.7배 향상된 수명을 보였으며, 하드카본 음극과의 완전지 실험에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 특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Energy Storage Materials(IF=20.4)에 6월 온라인 게재됐으며, 박찬진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논문 제목은 Structurally stable P3-type K_{0.4} sMnO₂ cathode with a KTaO₃ protective layer for high-performance potassium-ion batteries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노병하 기자

광주 고교생, 노벨 과학자의 길 떠난다

독일·스위스 7박9일 연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과학에 관심 있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16명을 선발해 독일과 스위스의 세계적 연구기관과 대학을 탐방하는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13일부터 21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세계로 미래로 노벨 과학자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막스플랑크연구소,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로잔연방공과대학교 등 세계적 연구기관을 방문해 강연, 실험실 견학, 진로 멘토링 등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키운다.

시교육청은 본 프로그램에 앞서 총 5차례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광주과학고 김동식 교사의 지도 아래 VR을 활용한 CERN 가상 탐방 및 탐구보고서 작성 수업도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해남 출신 69세 한영석 씨, 20년 투병 끝 생명 나눔 실천

밝은 미소로 힘든 병마와 싸워내
장기 기증으로 또 다른 생명 살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60대 남성이 20년 가까운 신장 투석 투병 끝에 뇌사 장기 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긍정의 삶을 실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전한 고인의 선택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3일 한국장기조지기증원에 따르면 한영석(69)씨는 지난달 8일, 평소처럼 교회 예배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당시 이미 뇌압이 높아 기본적인 검사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임을 설명했고, 가족들은 깊은 고민 끝에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고인의 폐는 다음 날인 10일,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던 환자에게 이식돼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됐다.

한씨의 선택은 단순한 의료적 행위를 넘어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숭고한 결정



기증자 한영석 씨. 한국장기조지기증원 제공

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55년 전남 해남에서 9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한 씨는 음악, 영화, 테니스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즐기던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두 아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영화관과 피자 가게를 함께 다니는 다정한 아버지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40대 후반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는 힘든 투병 속에서도 늘 밝은 얼굴로 병원을 찾았다.

한 간호사는 “웬만한 투석 환자들은 힘들어서 말수도 적은데, 한씨는 늘 활기차게 인사하고 주변을 격려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는 정말 드물다”고 회상했다.

한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결국 함께 가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남는다”며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한국장기조지기증원은 “한 씨의 장기기증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고인의 뜻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장 투석이라는 고된 여정을 웃음으로 견뎌낸 한씨. 그의 마지막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이 됐고, 남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용기와 위로가 됐다.

노병하 기자

전남·경북교육청, 학령인구감소 해법 함께 모색

여수서 영호남 교육 교류 진행
임용제도·작은학교 정책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방향과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도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여수에서 ‘2025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양 교육감과 두 교육청 국장, 전남·경북 사·군 교육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특색 교육과제 공유, 공동 현안 논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미국 트로이대에 개소한 ‘전남 글로벌 K-에듀센터’를 소개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최한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사례를 공유했다. 경북교육청은 AI 기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도·농 이음교실’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현안 토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남은 지역인재의 교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북은 중등교사 임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교원 기초정원제’ 확대를

통해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대중도교육감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영호남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북교육청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 위기 속에서 함께 해법을 고민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하반기에는 경북에서 다시 만나 정책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양 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교류의 폭과 깊이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노병하 기자